

문체부 장관, 강원 찾아 문화·체육·관광 현장 소통 나서

- 8. 7. 최휘영 장관, 이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만나 지역 현안 논의
- 국립춘천박물관과 춘천 반다비체육센터 등 주요 문화·체육 시설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7일(금)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이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문화·체육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역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 행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꿈의 예술단’, ‘문화가 있는 날’ 및 인디 음악 지원 확대 등 문체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호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원주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 거점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공유하고,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춘천박물관과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찾아 폭염 대비 등 현장 살펴

최휘영 장관은 면담 후 국립춘천박물관을 방문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냉방설비와 야외 편의시설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야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에 대비한 근로 환경도 꼼꼼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 국립춘천박물관의 대표 전시도 직접 둘러보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전시기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이용 환경을 살폈다. 최휘영 장관은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체육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휘영 장관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관표 (044-203-2611)
		담당자	서기관	여동빈 (044-203-2631)

